

참된 교회와 설교준비

발제자: 유병수목사(사랑샘교회)

들어가는 말

오늘날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설교에 대해 싫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소명 중에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기에, 참된 설교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이며, 가장 긴급한 필요라는 로이드 존스의 말은 언제나 정당하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큼 설교라는 주제가 설교자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설교자는 모두가 한 걸 같이 설교를 잘 하고 싶어 하고, 바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설교를 잘하는 것도, 바르게 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또 설교를 한 그간의 수 많은 세월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자신 없는 것이 설교이고,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언제나 설교자들에게 있어, 설교는 평생 배워야 할 숙제 중의 숙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주어진 수 많은 목회적인 일과 더불어, 일주일에도 여러 편의 설교를 해야 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단순히 설교를 하는 행위만의 문제가 아닌, 설교를 위한 많은 준비와 형편에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설교학의 책자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체계적이고 바른 원리를 따라 설교준비를 하고, 설교행위를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한 그런 원리를 따라 설교를 하는 것이 모든 설교자들에게 바람직한 설교 준비의 방식이나, 설교의 방식 또한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립스 부룩스의 말처럼,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제시”이기 때문에, 진리를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는 인격을 지닌 존재이므로, 설교자 각자에게 맞고, 어울리는 설교방식들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발제의 주제와 관련하여 설교문 작성의 노하우나, 일반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기 보다, 설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설교자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설교자를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설교는 한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제시이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인격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설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 관해 중점적으로 먼저 언급 한 후에, 설교문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과, 설교문 작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설교준비의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 본 후에, 마지막으로 설교준비를 위한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점검함으로 설교준비를 위한 실제적인 유익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설교자

1. 설교자는 설교의 일부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선한 삶이 없는 선한 말씀은 헛된 것이다. 목회자들로 하여

금 그들의 귀한 말씀이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무기력한 삶이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 시키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설교자의 삶이 설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설교로 준비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김남준은 설교와 설교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의 열매입니다. 무릇 설교자의 사람됨이 경박하면 그의 설교도 그러하고, 그가 경건하면 설교도 그러합니다. 설교자가 헌신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헌신을 설교할 때 언제나 설교는 빛을 발합니다. 그가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특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설교는 특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 사역을 계속 할수록, 설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는 설교자 자신의 영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의 영적 변화와 거룩한 인격의 성숙,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성화의 진전이야말로 더 높은 수준의 설교를 하는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는 좀 더 철저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필요하고,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다른 해석자들의 학문적인 결과와 협의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지성적인 면에서 계속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적인 면에서 진보 없는 설교는 수준의 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실이 설교자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학문적인 진보는 단지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영적인 성장과 거룩한 인격의 진보는 마음을 다하여 전 삶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곧 설교자입니다.

줄리어스킴은 설교자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설교자가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증언하는 자로서의 신뢰를 줄 만한 바른 인격과 삶이 선제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좋은 설교를 작성하고자 하는 노력 이전에, 먼저 그가 전하는 설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바른 인격과 삶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위대한 설교를 준비하려는 열망에 앞서, 먼저 위대한 주님을 높이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설교자와 성령

한 저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묻는 사람에게 40년 걸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설교는 성령이 설교자를 인도하고 훈련하는 오랜 과정을 통해 배양된 인격과 영성, 은사와 지혜를 비롯한 모든 자질의 총화가 발휘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설교의 요령과 테크닉을 배우려하지 말고, 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영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해 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는 밖으로 드러나는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표면 아래는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한 삶이 깔려있고, 더 깊은 저변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온 오랜 연단의 과정이 잠재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설교 준비는 설교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령을 온전히 따르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잭 헤이우드 목사는 “탁월한 설교는 못해도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하는 이의 설교를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되는 일은, 바로 자신 안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키며 성령의 조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성찰하는 기도와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

다. 깊은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며, 성령의 조명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는 노력이, 모든 설교준비에 앞서 가장 선제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극단적 성령론입니다.

즉, 설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인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노력을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육적인 열심으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하게 하심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강단에 올라가면 성령이 전할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극단론에 빠지게 되면, 설교자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소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의지한다는 태도가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의 열심과 노력을 약화시키고, 설교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간과한 채, 게으름을 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inspiration)은 공부와 상관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 때문에 온다.”는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가 한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3. 최초의 청자인 설교자

어떤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 여행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사람과,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행지를 직접 가 본 사람은, 비록 말이 조금 어눌하고, 표현 방식에 서툴다 할지라도 그 여행지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 곳인지 가장 실감나는 언어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그 여행지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욕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중생한 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깊이 체험하고, 누린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벅스터는 목회자의 자아성찰을 강조하면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완전히 새기어졌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자신 안에 새겨진 분명한 구원의 은혜의 흔적으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설교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기뻐하며, 감동하고, 확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벅스터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청중에게 그렇게 되도록 설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바를 우리가 믿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한 메시지를 성심껏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이고, 김남준목사 역시, 설교자가 설교보다 앞서 목상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체험할 것을 강조 하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지성소 깊은 곳에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목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물이 많듯이 목상이 깊으면 자연스럽게 설교하고자 하는 그 본문 앞에서 자기의 신념이 물같이 녹아지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설교하고자 하는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설교자가 회중의 마음 심층에 이르는 설교를 되어야 하려면, 설교자 자신이 먼저 그 메시지를 심층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은 맛보지 못한 채 어렵풋하게 알고 있는 진리를 회중에게 생명력과 감화력이 있게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설교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먼저 하시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바른 예배자요, 바른 청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예배자요, 진실한 말씀 청취자였던 적이 없던 예배 인도자가, 바르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참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만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설교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좋은 설교들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설교를 모방하거나, 설교를 따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선 설교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자신도 들음으로,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능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습관 속에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는, 신학 책 뿐만 아니라, 항상 좋은 설교집 또한 옆에 두고 있어야 하며,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4. 선지자로서의 설교자

구약의 선지자는 아무나 할 수 있거나, 혹은 제사장처럼 세습이 되거나, 스스로 원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하나님의 입으로 지명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선지자가, 매일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새로운 예언의 말씀들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수 많은 말씀들을 그가 듣고 연구하고, 살피는 일을 선재적으로 늘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갖는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기존에 하시지 않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신 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느 시점이 되어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저 앵무새처럼, 이전에 하신 말씀들을 리피트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전 인격과, 지식들을 통해 말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한 깊은 긍휼함과, 사랑 가운데,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오늘날 설교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즉, 설교자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에게 목상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문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앵무새처럼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풍성한 성경지식과, 신학적인 지식 속에, 논리적인 장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격적인 영역입니다. 즉 설교자는 비록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말씀을 전할 지라도,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 백성들을 향한 한 없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설교자가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에서 준비 되어지고, 또, 이러한 풍성한 세 가지 요소들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감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증인으로서의 설교자

설교자는 하늘로부터 떨어졌거나, 회중과 구분된 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설교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설교자는 구별되었지만, 말씀 위에 있는 자가 아닌, 여전히 말씀 아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그 회중으로부터 나와 회중을 향해 증언하기 위해 강단으로 부름 받은,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 스위스 신앙고백>에서는 말씀과 성례전을 위하여 특별히 세운 교회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표현하면서 이 일의 수행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 속에서 세워지는 존재임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칼빈도 말씀을 외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전권대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비록 회중가운데에서 나와, 회중과 구분된 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사역에 있어서는 회중

과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은 법정용어로 목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증인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생생하게 보고, 체험한 것을 전해주는 매개체이며 통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교회 용어로 사용하시면서, 이 증인이 목격자 개념에 더하여, 신학적인 개념까지 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예수님이 완성하고 이루신 구속에, 체험적으로 참여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구속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증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런 구속에 참여하고, 구속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① 먼저,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리차드 백스트는 ‘마음이 차가와 질 때에는 설교도 차가와지고, 마음이 혼란하면 설교도 혼란스러워지며, 설교가 차가와지면 가장 열심히 설교를 듣는 신도들조차 차가와 지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 고 했습니다. 즉, 설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마음은 진리로 불타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는, 언제나 논리가 기반이 된, 신학적이어야 하며, 신학적인 토대를 보편적인 명제로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임무는 복음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지성적이고, 신학적인 토대위에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지성은 불타는 지성이어야 하고, 불타는 논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말씀일 때, 그것을 설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서택은 그의 책 건축술로서의 강해설교에서 말하기를 ‘강의’와 ‘설교’의 차이는 바로 “진리의 불같은 적용”에 있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강의는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회중이 선택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설교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청중 스스로가 취사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김서택 목사의 말을 좀 더 들여보면 이렇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다. 이 불은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확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설교자에게는 자신의 설교가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은 선포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빠진 설교는 강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오직 능력과 확신과 성령 가운데 전한 복음이었다고 한 것이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59문은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다음과 같이 답한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총성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능력에 적응시켜 열열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것이며,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고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 없이도 강의는 할 수 있으며, 감동적인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없이, 설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설교가 설교 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② 설교는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설교는 요리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리는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것이 요리라고 한다면, 젖은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가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먹은 엄마가, 그 음식들을 잘 소화해서 젖으로 만들어 아이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젖엔, 엄마가 먹은 모든 음식물들 안에 들어 있는 갖은 영양소들이 다 포함되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설교란 좋은 설교 재료들을 여기 저기서 꺼내서, 그 좋은 재료들을 잘 구성하고 맞춘 것을 설교라 하지 않고, 설교자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딱딱하고 어려운 지식들도 섭렵해 나가고, 또 때로는 알고 싶고, 읽고 싶은 지식들도 삼가며, 그렇게 쌓여진 모든 지식들로 먼저, 자신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 가운데 고민하며 삶을 살아 냄으로, 그 삶의 방식 가운데 나온 자신의 확신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가르침의 풍부함은 삶의 방식이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풀어 이야기 하면, 설교자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는가에 따라, 그 가르침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빈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평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그 설교자의 설교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스터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설교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설교자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또 이어서 “설교자는 바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는 자세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살아 있는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심층에서 설교하고 메시지가 당신 안에 깊이 와 닿도록 하라. 목수가 여기저기에서 나무 조각들을 주워 모아 못을 박아 테이블을 만드는 식으로 설교를 조립하지 말라. 메시지는 살아 있는 것이어야 한다. 메시지는 당신 마음의 토양에서 자라나온 것이어야 하며, 당신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스스로의 연구에 뿌리를 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조각이나 부스러기들을 모아 만든 설교는 대개 경작된 것이 아니라 가공된 것처럼 들린다.

이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득 채우고, 훌륭한 작가와 사상가들의 생각들로 지성을 채운다면, 지혜의 샘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샘은 설교가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은 항상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설교자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잊지 말고, 늘 자신의 삶에서 경건이 유지되며, 끊임없이 학습과, 기도,와, 분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한 젊은 목사가, 자신의 설교를 비판하며, 리처드 세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세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네! 자네가 준비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자네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네”

설교에 대한 기초적 이해

1. 설교의 중요성

오늘날,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에 대한 기대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이 설교를 대치할 수도 없고, 대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언제나 교회와 목사의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 하였고, 설교와 기도와, 성례전을 통해서만,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제 1차적인 임무는 바로 설교를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교회가 제 1차적인 임무인 설교를 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는, 비록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훌륭해도,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평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한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고, 칼빈도 설교를 교회와 목사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사명으로 말한 것입니다. 청교도들 또한, 이 설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에 헌신했으며, 그들의 모든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설교를 놓아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바로 설교 행위를 통해 회중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설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회중들은 말씀과 접촉 될 때 비로소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의 접촉이 바로 설교자와 그가 전하는 설교를 매개체로 하여,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55문은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다음과 같이 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2. 설교란 무엇인가?

(1) 설교는 해석학적 행위이다.

설교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런 점에서 보면, Retelling (다시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있어서 본문은 주어진 본문, 즉 성경 66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은 신학자가 하고, 설교자는 적용만 잘 해주면 된다는 것은 심각한 착오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분명한 해석학적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설교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관계를 근거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관계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과, 그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관계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언약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에게, 언약을 통한 위로 뿐만 아니라, 그 언약관계에 마땅한 순종을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가 땅 끝까지 확장 될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설교의 목적

설교를 잘 한다는 것은, 설교의 목적을 이루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설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중들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인간들의 필요들을 채워 주려 하거나, 혹은 설교자 자신의 자랑이나, 웅변술을 과시하기 위해 강단을 이용하는 것은, 강단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회중의 가치관과, 태도와, 의식과, 행동 등, 회중의 전 인격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중들의 변화는 바르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맞닥뜨려질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의 주요 목표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존전에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라 했던 로이드 존스의 견해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단골손님이 떨어질까 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설교를 해서도 안 되며, 결과에 너무 연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회중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교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닌, 설교가 얼마나 바르게 선포되었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의 목적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는데, 이러한 청교도들의 설교를 보면, 바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 청교도 설교의 특징

첫째, 청교도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문화적, 사회 도덕적 설교가 아닌, 오히려 이런 설교들을 배격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가장 일반적인 설교의 방식이 강해설교였던 것입니다.

둘째, 청교도들의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엔, 늘 정죄된 교리가 있다고 믿었기에, 설교에서 교리를 도출해 내려 노력한 것입니다.

셋째, 청교도들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든 구원 경륜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고 믿었기에, 설교에서 십자가를 놓치면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넷째, 청교도들의 설교는 논리적인 설교였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며, 인간은 지.정.의의 질서를 가진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의지는 정신을 통해 영향을 받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영적인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신에 도전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서 깨닫게 되면, 그 지식이 온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혁파적인 설교라는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혁파 설교

는, 가장 기본적으로 삼중적인 구조를 가졌는데, 먼저 교리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문맥을 보았고, 다음에는 구절들을 주해했고, 다음에는 중요한 단어나 문법을 설명하고, 그 후에 그 본문에서 교리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란 오늘날 인식하고 있는 교리를 말함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교도들의 설교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거하고, 회중들에게 논리적이고,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현대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설교하는 경향이 있지만, 청교도들은 말씀의 의미를 단순 명료하게 가르친 후에, 말씀의 의미를 중심으로부터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여섯째, 청교도들은 설교는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바른 교훈에 착념했고, 거짓된 교훈들을 반박했으며, 그들이 믿는 바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설교준비와 설교문 작성

실제적인 설교준비와 설교문 작성은 가장 일반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기도와, 본문 선택, 성경 읽기와, 묵상의 단계인 예비 단계와, 이제 본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본문해석의 단계, 즉 언어학적, 문학적, 그리고 삶의 환경에 대한 분석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설교준비의 단계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모든 설교자들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의 다양한 방식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들이 이런 일반적인 설교준비의 원리를 따라, 설교준비를 할 필요는 없겠으나, 가장 기본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 설교의 예비단계

1) 기도

성경은 막 태어난 신약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들이, 두 가지 주요한 교회의 본질에 헌신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와 기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들 또한 기도가 자신들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자, 필수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은 채, 그 어떤 일이나 사역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도,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준비한 후에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설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감리교 설교가이자, 기도의 권위자인 E. M 바운즈는 우리의 기도의 성격이, 우리 설교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가벼운 기도는 가벼운 설교를 만들어 내며, 깊은 기도는 깊이 있는 설교자를 만들어 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의 설계 단계 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문의 작성과 설교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설교가 마쳐지고 난 후에까지,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교자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 하나님과 교통하여 좋은 결과들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의 능력에 달려 있다. 기도의 능력은 거의 증명되지 않고 가능성도 거의 이해되지 않지만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설교의 모든 부분이 기도의 진통 속에서 나와야 한다. 설교의 마지막은 간구와 기도, 찬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설교 전달은 기도의 용광로에서 나온 사랑으로 감동적으로 열성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2) 본문선택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본문과 주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줄리어스 킴은 그의 책 설교학에서 청중의 특수한 영적 상태와 필요를 살피고 그에 맞는 본문과 주제를 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설교자는 진리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는 진리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그리고 특정한 청중에게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중을 알고 그 청중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본문과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청중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설교 본문은 인위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설교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가 하기를 원하는 설교 유형에 따라 설교본문을 택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설교본문은 이렇게 정해져야 한다는 한 가지 원칙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어떤 유형의 설교를 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그 설교유형에 따른 본문 선택의 원리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주제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강해설교를 할 것인가? 혹은 교리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 연속적인 설교를 할 것인가? 에 따라, 본문선택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 유형을 본문 선택의 문제와 연관하여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본문을 매주 성경 여기 저기서 바꿔가며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고수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19세기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스펀전인데, 스펀전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강경한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는 연속설교를 신뢰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연속설교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연속설교를 하겠다고 설정한 자체가 주제넘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본문은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펀전은 설교자는 본문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펀전의 입장과는 달리,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연속설교를 신뢰했고, 연속설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자의 가장 주된 임무가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자들은 자신의 평생에 성경 한 권, 한 권을 강해하여 진리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에서 이 균형을 유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본문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성령의 역사의 자유를 보존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주 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문이 정해져야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문 여기 저기를 설교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성경 전체를 연속해서 설교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설교자는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본문을 찾거나, 설교를 하기 위

한 목상을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경건을 위해 성경을 읽을 것을 말하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크게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며, 확신이 설 때 그 본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평소에 성경 한 권 한 권을 계속해서 충분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한 방식이며, 또한 설교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감명 받은 본문에 대한 설교이든지, 아니면 성경 한 권 한 권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한 설교이든지, 모든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충분히 밝혀내는 강해적설교 이어야 함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3) 읽기와 목상

이제 설교해야 할 본문과 주제가 정해졌다면, 성경 본문을 읽고 목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 읽기는 여러 번 읽고, 또 읽되,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바로 잘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본문이 포함된 성경 전체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것에 대해, 브라이언 채플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한 가지는 본문이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본문의 중심 사상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본문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가? 하는 본문의 저작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본문의 말씀에 대한 목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목상에 대해 로버트 클라우니는 말하기를 성경에 나타나는 목상은 성령이 주신 말씀을 통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영적 훈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기록된 말씀(성경)과 살아 계신 말씀(예수)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상의 유익이 갖는, 최고의 유익에 대해 워렌 위어스비는 상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상력과 공상은 전혀 다른 것인데, 공상은 내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도록 하는 허상이지만, 상상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는 목상에 기초한 것으로, 설교자로 하여금 현실을 꿰뚫고 그것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설교자는 본문에 주석과 석의를 하고, 교리들을 밝혀 내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설교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바로 목상을 통한 설교자의 상상력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다른 유명한 설교자들의 것을 카피하고, 흉내 내는 일에 몰두할 뿐, 설교자 자신이 되어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목상의 부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설교자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목상과, 고난이라고 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목상할 때, 도움이 되는 조언에 대해 줄리어스킴은 이렇게 말합니다.

- 문맥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조용하게 여러번 읽으라. 그 다음에 본문을 크게 소리내어 읽으라.
- 크게 여러번 읽으면서, 여러 핵심 단어구나 구절을 암송하라.
-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본문이 말하는 여러 핵심 단어구나 구절을 암송하라.
- 특히 본문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라.
- 하나님, 설교자, 회중에 대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라.
- 특히 본문의 진리에 비추어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주목하라.
- 말씀을 목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섭리, 능력을 찬양하라.
- 기회가 된다면 설교한 본문의 메시지를 한 주 동안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개인적 목상시간이나, 가족

예배 때 그 메시지를 이용해도 좋다.

-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묵상하라. 특히 본문의 진리를 설교자 자신과 청중의 마음에 적용할 지 생각하라.

2. 본문 해석의 단계

기도하면서 본문을 택했다면, 이제 그 안에 담긴 진리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는 단계는 본문을 해석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언어학적인 분석과, 문학적인 분석, 그리고 삶의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언어학적 분석

이것은 본문이 실제로 말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단계로, 이러한 언어학적 분석에는 여섯 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 ① 먼저, 첫 번째로 본문 분석의 전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 ② 두 번째는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캠벨 물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기 위해 본문을 40-50회 반복해서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 ③ 세 번째는 예비적 설교 명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명제는 나중에 다시 수정하더라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해 보는 것이 좋은데, 먼저 첫째 부분은 본문이 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평서문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래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 본문의 진리에 대해 기대되는 답변을 원인과 결과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브라이언 채플은 첫째 부분에서는 ~때문에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11-14절의 설교 명제를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 ④ 이제 네 번째는 설교하려는 본문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해하는 단계입니다. 원문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들과, 동사의 지세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버전의 번역본들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의미들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⑤ 다섯 번째는 본문의 문장 구성과 구조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문학적 분석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단계는 본문의 주요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 ⑥ 여섯 번째는 설교 명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들에 근거해서, 다시 설교 명제를 다듬는 것입니다.

2) 문학적 분석

이제 언어학적 분석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 문학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문학적 분석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본문이 속한 장과 책으로부터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다른 책과의 관계 속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이 지닌 문학적 장르에 비추어 분석하는 것입니다.

① 가장 먼저, 본문이 속한 장과, 책에 비추어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잔잔한 물에 자갈이 떨어질 때 형성되는 동심원처럼, 설교 본문에서 출발해서 본문 주변의 문맥들과, 앞뒤 구절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이 속한 책 전체에 비추어 살피는 것입니다. 즉, 책 전체의 더 큰 구조 속에서 본문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의미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쓴 다른 성경이 있는지 살핌으로, 그 저자가 쓴 다른 저작들과의 유사성이나, 관계성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② 두 번째로 성경의 다른 책에 비추어 본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독특한 문학적 방식으로 저자의 생각을 표현한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다른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주제에 대해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저자들과 다양한 역사적 배경속에서도, 계시의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성경 전체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③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문학적장르에 비추어 본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내러티브, 율법, 지혜서, 시가서, 예언서, 묵시문학, 담화, 복음서, 비유, 서신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이 속해 있는 문학적 장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장르의 특성에 근거한 본문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정확하고, 풍성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삶의 환경에 대한 분석

세 번째, 마지막 본문해석은 삶의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 본문이 언제, 그리고 왜 기록되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삶의 환경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인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살피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저작 이유와 목적을 살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작 당시의 일반적 역사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살피는 것으로 이것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구체적인 저작 이유와 목적을 살피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것은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특별한 상황적 요소가 있는가? 혹은 당시의 독자의 삶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죄, 문제, 사건들이 있는가? 하는 접근에서 나온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이언채플이 이야기 한 바대로, “타락한 상태에 대한 초점”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이 되도록 하는 해석적 측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설교문 작성

한편의 설교문을 완성한다는 것은 산파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일은 고도의 지성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며, 무엇보다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은 성경 연구에서 발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인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 편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아깝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그러나 설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적절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삭제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진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항상 설교의 초점과 목표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설교문을 작성하되, 분명하고 간결한 어조로 문장을 서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헨리 쇼윳은 “설교의 주제를 짧고 함축성 있는 한 문장으로 수정과 같이 맑게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설교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설교문이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나열해놓는 만물상처럼 되게 하는 것보다, 한 가지 확신한 맛으로 승부하는 전문점처럼 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연구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설교 내용 안에 넣으려고 하면, 초점이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 작성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다 작성한 후에,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잘 드러났는지 점검하면서, 초점에서 벗어난 것은 비록 참신하고,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또 멋진 예화라 할지라도 아깝다는 마음을 극복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호하거나, 애매하게 표현된 것들을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마구잡이 어휘와, 적합한 어휘는 번갯불과 반딧불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쓸 것인가? 아니면, 골격만을 가진 설교문을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로이드 존스는 절대적인 법칙을 정해 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그 사람만의 설교하는 특성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에는 그런 절대적인 법칙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방식에는 그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스펀전은 완벽한 설교를 작성하는 대신 개요만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설교문을 쓰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펀전이 선택한 방식은,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택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토마스차머스 박사는 설교문을 완벽하게 작성해서 올라가야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설교문 없이 설교하는 시도를 여러번 하였지만, 그 때마다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늘 완벽하게 설교문을 작성했고, 이것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절충적인 설교방식을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에드워즈는 그의 사역 초기에 거의 완벽한 설교문을 늘 작성해서 강단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원고를 거의 읽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손에는 늘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원고를 든 채 강단에 섰었다는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설교방식은 점점 후기로 갈수록, 개요만 작성하는 설교방식을 취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설교를 계속해 나가면서, 점점 자신의 설교방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 또한, 처음 10년 동안은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원고를 작성하는 일이 설교를 훈련하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10년 동안은 완벽한 설교를 작성하는 일과 더불어, 개요만 작성하여 설교하는 일을 병행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개요만 작성하는 설교문이, 폴스크립트를 쓰는 설교문 준비의 과정이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개요만 작성하는 설교문의 방식은 이미, 모든 설교준비가 다 끝난 후에, 그것을 요약하여 강단에 올라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이드 존스방식의 설교문 작성 방식은, 오늘날 자신의 설교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

게 되면, 점차로 설교문이 이미 다 완벽하게 작성된 후에, 그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요와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선포된 설교를 통한, 설교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설교는 일평생 배워야 할 설교자의 가장 큰 숙제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자는 일평생 설교를 배우다가 생을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발제 주제가, 참된 교회와 설교준비인데, 설교라고 하는 방대한 영역 가운데, 설교준비라고 하는 한 영역만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다양한 주제들 뿐만 아니라, 이 한 시간 동안 다루지 못한, 여러 많은 주제들이 여전히 많은 것은 그 많큼 설교의 영역이 방대하고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준비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설교시 예화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 예화의 소재들은 어디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두 번째는 설교의 분량과 길이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세 번째는 설교시 유머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설교의 적용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매일 하는 새벽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평상시 설교준비를 위한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설교자 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바른 설교를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과연 우리 자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또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논의 또한 함께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설교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사도바울이 했던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장 16절)” 하는 고백을 우리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설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펀전은 자신은 설교준비를 하다가 인생을 다 보냈다고 했는데,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설교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